

광주경찰청, 인력 효율화 위한 조직 개편 본격 돌입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 발령·부임
일선 경제범죄·사이버수사팀 통합
동·남 강력·형사팀 일원화...5교대
동·남구 변사 전담팀·혼성기동대

광주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인사를 기해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와 형사과를 통합하는 등 치안 수요에 따른 조직개편에 착수했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발표한 청·경찰서 경정급 인사 발령에 따라 이날부터 새 부서장들이 각 조직에 부임한다. 이번 인사는 '치안 수요에 맞춘 수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우선 5개 일선 경찰서 수사과는 각종 경제 범죄의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진 현실을 고려해 기존 경제 범죄수사팀·사이버범죄수사팀을 합쳐 '통합수사팀' 체제로 개편한다. 다만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수사과 인력도 충원한다. 팀 통·폐합으로 여유가 생긴 정원 29명을 효율적으로 활용·보강한다.

동시에 일선서 경제 관련 수사팀은 24시간 당직 체계로 전환한다. 1개 팀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민원 상담·사건 접수 등의 근무를 선다.

각 경찰서 경제·사이버범죄수사팀은서의 인력 규모에 따라 1개 팀에 팀장 1명·팀원 4~8명이 배치된다. 팀원 수는 각 경찰서의 인력 여건에 따라 수사과장이 직접 배정한 뒤 청에 보고한다.

수사 사무 분장도 재조정된다. 인터넷 직거래 사기·사이버 명예훼손 등 민생범죄는 일선 경찰서가 맡는다.

광주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인터넷도 박장 개설 등 굵직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한다.

치안 수요·규모가 작은 동·남부 경찰서는 형사과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 기존의 형사·강력팀으로 나눠져 있던 인력을 '통합형사팀'에 배속, 형사과에서 담당하던 모든 사건을 처리한다. 동·남부서 모두 5개 팀씩 꾸려지며 팀당 팀장 1명·팀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로 인해 팀당 인원이 늘어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형사팀끼리, 강력팀끼리 4교대 근무를 하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청은 보고 있다. 실제 휴식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5교대 체제로 바뀌면서 일선 형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변사 사건 처리를 위해 동·남부서 '통합 사인수사팀' (팀장 1명·팀원 3명)도 새롭게 출범한다.

사인 수사팀은 동·남구 관할 지역 내 모든 변사 사건을 처리하며, 수사 지휘는 남부서 형사과장이 맡는다. 사무실도 남부서 청사에 둔다. 다만 단순 변사가 아닌 범죄 연관성이 확인된 사건은 발생지에 따라 각 경찰서 형사과가 따로 수사한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수사 역량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팀 통·폐합으로 팀장 직급인 경감

이 팀원으로서 직접 사건을 맡을 수 있어 팀 단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도 경찰청 차원에서 확대 편성키로 한 혼성 기동대도 올 상반기 추진된다. 혼성 기동대가 출범하면 여경 중대 인력이 각 기동대에 재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광주경찰 안보수사2대장으로

직을 옮긴 박병언 전 동부서 경비교통과장은 "오랜 시간이 이어져 온 체계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전면 바뀌게 됐다. 이전에 비해 '수사 경계의 모호함'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단적으로 과거에는 컴퓨터 중고 사기 등이 발생하면 '이것을 경제팀에서

할 것이냐 사이버 팀에서 할 것이냐'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당장은 기존 질서가 익숙해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사 역량이 발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북구, 룸카페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
북구, 룸카페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

광주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직원들과 경찰, 유해환경감시단들이 14일 북구 용봉동의 한 룸카페에서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을 위해 시설 형태와 설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 뺑소니 50대 재심 감형 "피해자 과실 고려"

무안서 음주운전에 무면허까지
1심 4년·2심 3년→재심 2년 8개월
횡단보도 앞아 있던 피해자도 책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있던 사람을 사상케한 40대 남성이 '유해조법' 위험 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

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5일 오전 5시께 무안군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앉아있던 B씨를 충

격해 숨지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를 치어 10m가량 날아가게 한 뒤에도 쓰러진 B씨를 깔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20년 3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같은 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1·2심에서 "새벽 시간 횡단보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고라니를 친 것으로 여기고 현장을 이탈했을 뿐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도주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11월 자신의 사건에 적용된 음주운전 재범의 가중처벌 조항(운

항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 지난해 8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앞 횡단보도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당시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만취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주저앉아 있다 사고를 당한 B씨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형을 징역 2년8개월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정성현 기자

주재기자 모집

당사는 지역언론을 선도할 진취적이고 창의적 이상을 갖춘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및 인원

지역	고흥, 담양, 보성
인원	각 1명

제출서류

- 이력서(연락처 명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소개서..... 1부

접수마감 및 접수처

- 접수마감 : 채용시 마감
- 접수처 :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사 경영본부
- 이메일 접수 - recruit@jnilbo.com
- 기타 사항은 ☎(062)510-042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全南日報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지통 (062)519-0710

全南日報

봄에 떠나는 그리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